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여름 계절학교 막 올라

영아·유치·초등 각부 7월 19, 20일 교회당에서
나머지 부서 대부분 충현기도원 이용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여름 계절 학교가 일제히 시작된다. 매년 여름마다 실시하는 계절학교는 유치·초등부의 경우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같은 40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 각 교회학교 교육시간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자신의 신앙상태를 돌아보고 나태해진 부분을 보강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따라서 여름 계절학교는 각 교회학교에서 1년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기획이다.

이미 2,3개월 전부터 아니 어떤 부서는 연초부터 여름계절학교를 준비해 온 여름계절학교를 앞두고 각 부서는 마무리 준비 및 확인 작업에 여념이 없다.

장년3부가 합동신학교에서, 고등부가 충북 음성에서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교회당과 그 부속건물에서, 그리고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강사도 교회내부에서 선정하므로 보다 평상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계절학교를 치루려는 의지들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주제 및 프로그램도 각 부서의 특성과 평상시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정해져 갈수록 정착되어 가는 계절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좀 더 한 마음이 되어 기도,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행사명	주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장소	실시일
영아부	제20회 여름성경학교	특별한 사람	창 1:31	변함없는 사람	영아부실	7.19-20
유치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막 1:15	하나님의 나라	교205,201	7.19-21
초등1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꿈이 있는 어린이가 되자	시 37:4	411	교 212	7.19-21
초등2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생활	막 1:15	382	교314,301	7.19-21
초등3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소망의 나라	막 1:15	소망의 나라	교 307	7.26-28
초등4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평화의 나라	막 1:15	468	교 407	7.19-21
초등5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평화의 나라	막 1:15	평화의 노래	교 414	7.19-21
초등6부	제40회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생활	막 1:15	495	충현기도원	7.19-20
중등1부	제31회 여름수련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눅 21:36	483	충현기도원	7.19-21
중등2부	제31회 여름수련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178	충현기도원	7.21-24
중등3부	제31회 여름수련회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막 1:15	208	충현기도원	8.5-7
고등부	제31회 여름수련회	섬기는 미래 지도자	막 10:44-45	303	충북 음성	8.9-11
대학부	제24회 여름수련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충현기도원	6.28-7.2
청년부	제17회 여름수련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딤후 2:3-4	390	충현기도원	7.15-17
장년1부	제 6회 여름수련회	시련을 넘어서 이긴다	벧전 1:7		갈릴리홀	7.17
장년2부	제14회 여름수련회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	벧후 3:18	498	충현기도원	8.13-14
장년3부	제14회 여름수련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엡 4:1-3	222	합동신학교	6.21-22
장년4부	제 4회 여름수련회	빛과 소금으로 살자	마 5:16	358	갈릴리홀	8.17-18
소망부	제18회 여름수련회	소망의 답답함을 견고히 잡자	히 3:6	539	갈릴리홀	8.19-20
새가정	제10회 여름수련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는 가정	수 24:14-15	305	충현기도원	5.4-5
사랑부	제5회 여름성경학교	찬송하며 가는 나라	시 113:2	해 뜨는 데부터	사랑부실	7.17
에바다(화)	제5회 여름성경학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롬 12:1	356	충현기도원	7.22-24
에바다(성)	제5회 여름수련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롬 12:1	356	충현기도원	8.2-4
영어교육	여름수련회	Word Up	요 15:7	235	봉사관	8.15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청민 목사

· 7월 7일 총회 전국 교역자 하기 수양회 설교(광주 무등산 관광호텔)

2. 신성종 목사

· 현지시간 7월3일, 4일 '93 대 뉴욕 할렘루아 전도집회 인도(7월 1일 ~ 4일, 주강사: 신성종 목사)

이 사람을 만나보니

불가리아 세계농아인 체육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는 에바다부의 이태훈 형제



제13회 장애인 체육대회(일명 곰돌이 체전)에 출전하여 100M와 400M 달리기에서 1위로 입상하여 7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 체육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된 에바다부의 이태훈 형제를 에바다부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의 수화통역으로 만나 보았다.

▶ 축하합니다. 언제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다른 대회에서도 입상했나요?

▷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좋은 성적들을 내어서 기쁩니다. 작년에에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입상했고, 일본에서 열린 한일농아대항전에서 100M와 400M에서 2등을 했습니다.

▶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나요?

▷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유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저는 5년전 충현교회에 에바다부가 생기면서부터 나왔는데 참으로 좋습니다. 저와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 앞으로의 희망은?

▷ 운동을 잘해서 체육대회에 전학하는 것과 일반대회에 나가서 한번 거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체육선생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농아인들을 잘 돌보아 주고 싶습니다.

현재 에바다농아학교 고등부 3학년인 이태훈 형제는 매우 밝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100M 기록이 11.1초, 이 기록이면 일반대회에서도 훌륭히 거뜬한 기록이다. 이번 불가리아 세계대회에서 상위입상을 하면 체육대학 진학도, 일반대회 출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태훈 형제가 그의 꿈을 맘껏 펼칠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지켜보기로 하자. <형>

초대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귀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충현교회가 금년도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의 하나로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아래와 같이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초기 한국 기독교와 교회교육을 회고하고 오늘의 교회학교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며 앞으로 교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귀하를 초대하오니 오셔서 많은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3년 7월 12일(월) 10:00 ~ 16:30

□ 장소 : 충현교회 국제회의실 (선교관 5층)

□ 대상 : 전국교회 교회교육 지도자

□ 기타 :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자에게 강의안 배부, 중식제공

□ 문의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기획실 (대표전화 552-8200)

주후 1993년 7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설립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대회장 신성종 목사

□ 논제 및 강사 :

10:00-10:30	개회예배 (설교:신성종 목사)
10:30-12:00	논제1/ 초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계승방안 발제: 주선애 교수(장신대) 논평: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12:00-13:00	점심시간
13:00-14:30	논제2/ 교회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제시 발제: 오인탁 교수(연세대) 논평: 장용섭 교수(한신대)
14:30-15:00	휴식시간
15:00-16:30	논제3/ 교회학교 교육지도자 양성론 발제: 정일용 교수(총신대) 논평: 박상권 교수(장신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변화산에서의 변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섯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5대 사건 중의 하나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 본문의 배경

변화산이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본문 1절에는 '높은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라 하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약 38km쯤 떨어진 산인데 그 헤르몬산은 높아서 여름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요단강으로 흐릅니다.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변형됐다는 말은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성경에는 'trans forme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내면세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영광스럽게 될 모습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박힌다고 하는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듣고 '이제 큰일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직장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함께있을 것인가? 흠여져야 할 것인가?' 하며 제자들은 마치 고아들처럼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확신이 없고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마치 새처럼 머리위로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이 생기면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생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다. 바로 기록하고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름이 없는 기계나 마차바퀴가 돌아가려면 삐그덕 거립니다. 교인들도 기름칠한 교인이 있고 기름칠 안한 교인이 있습니다. 기름칠한 교인은 성령받은 교인이요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한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저 묵묵히 신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러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요란해서 금방 표가 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제자들처럼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나타나실 때에는 혼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렇게 삼대거두 회담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약 1500년전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 40년간 광야생활을 통해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900년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1500년 전에 살았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살았지만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넣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고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눅9:31)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별세'라고



예수의 변형

(마 17:1-13)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엑소도스(Exodu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장차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엑소도스(Exodus)라고 표현했는데 엑소도스라는 말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출애굽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임을 엑소도스라고 표현한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임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라 그말입니다.

3. 베드로의 잘못

본문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도무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큰 잘못입니다. 산 위애다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

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잘못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시몬 베드로가 범했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행복만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그냥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산 밑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힘들니까 싫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밤낮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는 이기주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저 산

밑에는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또 하나의 다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고난의 중, 고난의 주님을 간과

하고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광은 받으려고 하지만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작게는 내 개인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인격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삐그덕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녀전도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회와 교역자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금년인 6·25가 일어나지 43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 2의 6·25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개혁이나 법적인 개혁, 외부적인 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회개운동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안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이웃, 교회 안나오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선택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 보면 권력 있는 자가 재물을 겸하여 택하다가 다 쌓아놓은 탐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반대로 재물을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다가 혼이 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목사나 교수나 법관은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권력이나 재물을 겸하여 택하려고 하면 언제인가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를 지기 내세를 택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명예 중의 명예, 즉 영원한 것을 택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모름지기 재물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명예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글 / 신 성 중 목사

◆ 맥추절을 맞으며 ◆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중 대

(목사, 중동부·제4교구 지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출 23:14-17). 이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맥추절'을 직역하면(히브리어) '첫열매의 수확 절기'(첫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번역됨)라는 뜻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지나고 7 x 7 = 49일 후의 절기라는 뜻이며 오순절의 명칭은 유월절 지나고 7 x 7 + 1 = 50 일 되는 절기라는 뜻이다. 맥추절이 유월절로부터 날짜 계산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지나면서부터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이어서 보리를 거둬들이는 일을 하게 되며, 49일 후가 되면 밀의 수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 7주 동안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여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기도 했다) 했으나, 하나님께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특별한 축제일은 맥추절 하루로만 지켰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의 성령강림이 바로 이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오순절은 성령강림절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용어는 그 전부터도 있었던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초기에 보리 수확기인 6월말 ~ 7월초의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리 수확기에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 한 것이다. 원래는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짜인 것을 알고는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차츰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성령강림절 주일을 더욱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안다(우리는 지난 5월 30일 주일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맥추절에는 곡식으로 직접 드리기도 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두 개의 빵덩이를 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소제였다. 빵 두 덩이는 성령강림으로 인한 유대인 성도 + 이방인 성도가 하나로 된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의 그림자였다. 율법을 낭독하고 시편 찬송을 불렀으며 끝날 때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들을 불러서 기쁨으로 공동의 식사를 하였다.

우리는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맥추 감사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맥추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

이 있어야 한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 감격해야 한다. 용서받은 죄인에게 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한다. 성령님으로 인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민감한 신앙양심이 성경말씀으로 더욱 예민해져야 한다. 회개 후에 오는 감사와 기쁨은 참 기쁨이다.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다. (사람의 격이란 뜻이 아니다). 성령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에 이끌린 기도 등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지는 않는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합부로 성령님을 부문별하게 명령(?)하는 과오를 범치 말아야 하겠다.

다.

맥추절의 '두 덩이 떡'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되는 것이다. 하나됨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파벌의식이다. 공동체에는 어떤 류의 파벌도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영적 분위기에서 파벌의식을 직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쪽 편인가' 신경을 쓰는 것이 보이면 새로 온 사람은 큰 비애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근심되게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자. 학연, 혈연, 지연 기타 어떤 종류의 파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한다. 파벌은 진리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이성의 산물이다. 소위 우리편에 속한 사람의 말은 비성경적이어도 무조건 찬성하고, 다른 편의 말은 성경적이어도 무조건 반대하는 식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항상 무엇든지 내 말에는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면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은 말한다. 구심점이 있어야 하나 된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 구심점이 파벌의식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되게 하는 구심점이다. 진리의 구별은 성경말씀으로 한다. 성경해석의 한계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또는 교단의 '헌법'이다. 우리 모두 모든 파벌의식을 불식하고 성령의 겸인 말씀으로 하나되기를 힘쓰자

그리하여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다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맥추 감사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맥추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

충현교회에 발을 들여 놓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지도 어언간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시댁도 역시 불교를 믿으셨고, 나의 사돈댁들도 역시 불교를 믿는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충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전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지만 충현가족이 된 것이 정말 놀랍고 새롭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리부터 예비하여 놓으신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충현교회에 다니던 친구로부터 92년 11월 1일에 충현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있으니 한 번만 꼭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전도를 하였지만 컛등으로만 흘러보내고 말았었는데 이날 전화는 어쩐지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 외에 다른 친구 두 명도 같이 가서 예수사랑 큰잔치 예배에

† 내가 만난 예수님 †

나를 위해
20년을 기도해 온 친구 덕분에서 정 옥
(사도1족부 2-12인)

참석을 하고 그날은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만족감에 흥분한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8일 2째 주일 예배에 한번만 다시 나와 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거절을 못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터진 울음은 그칠 줄 모르며 지나간 세월을 헛되이 살았구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머리 속

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지내놓고 생각하니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는가 봅니다. 나를 위하여 20여년 간을 두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한 친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어 내 나이 육십이 넘어서 충현교회에 와서 믿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감사 기도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불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아직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많이 부족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지도하여 주시는 홍창민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귀기울여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고 배우며 행하겠습니다.

좀더 일찍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게하심을 합니다. 이제껏 믿음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지나간 세월도 주님은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어 편안히 지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막소식

- ◆ 임마누엘 찬양대는 8월9 ~ 11일까지 수양회로 모이며 임마누엘 중창단 오디션이 미주 찬양대 다녀온 후에 있을 예정이다.
- ◆ 영아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2부에서 3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린다. 시간은 오전 9시, 10시, 11시며 가능한한 오전 10시의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 ◆ 유치부는 여름성경학교를 7월 19 ~ 21일까지 한 주간 앞당겨서 실시한다. 여름성

- 경학교 준비 기도회가 7월18일 주일 4부 예배후에 유치부실에서 있다.
- ◆ 초등3부는 오늘 2학기 성경시험이 있다.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책받침
- ◆ 초등4부는 오늘 분반 공부시 2학기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3학기 동안 현금위원으로 봉사할 어린이를 모집중이다.
- ◆ 초등5부는 오늘 2학기 성경고사가 있고 여름성경학교는 7월 19 ~ 21(수)까지 열린다.
- ◆ 중등1부는 7월 19 ~ 21일(수) 까지 중헌 기도원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 김창인 목사, 유창무 목사, 장봉생 목사, 김희수 목사
- ◆ 중등3부는 오늘 손종원(집사, 신임과 과장)교사의 연구수업이 있다. 또한 매주일 오후 1시, 교육관 507호에서 영어성경공부를 실시한다.
- ◆ 고등부는 7월1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칙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 ◆ 청년부는 지난 주일 저녁찬양예배에서 통합헌신예배로 드렸다.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될 것을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 청년부 교사 13명에 대한 임명식도 있었다. 청년부는 오늘(7월4일)부터 교육관 507호에서 집회를 갖고 집회후 교육관 5,6,7층에서 각종 모임을 갖는다.
- ◆ 감사위원회는 93년도 상반기 감사를 7월4일부터 25일까지 주일에는 II부 예배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 수요일에는 수요일부 예배후부터 오후 4시까지 선교관 404호실에서 실시한다.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기간 중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중헌선교연구원에서는 연구원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7월11일까지 등록은 교육관(교육관 103호)에서 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7월7일(수) 총회 전국 교역자 하기수양회 설교(광주 무등산 관광호텔)
· 신성중 목사님 : 현지시간 7월3일, 4일 '93 대 뉴욕 할렐루야 전도집회 인도(7월1일 ~4일, 주강사 : 신성중 목사)
2.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미주선교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게 하소서.
4. 각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소식

미전도 족속 남태평양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며

2년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92년 7월에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선교선 한나호에 파송받게 되었으며 한나호가 사역중에 있는 남태평양의 압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태평양 하면 산호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땅만 쳐다보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곳 원주민 중 반 정도는 아직도 옷을 입지않고 하체만 천으로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기가 난처했기 때문입니다. 한나호가 정박해 있는 부두에서 가까운 곳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돈 계산하는 여자도 옷을 입지 않고 있기때문에 물건을 산 뒤 돈 계산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해 달라는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잠으로 주님의 사랑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사랑인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생활을 배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언제나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이용한 사역이기 때문에 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엔진부에서 매일 기름결례를 만지며 배의 가장 밑창에 있는 기계들에 기름칠하고 닦는 일이 저의 일과였으며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간이 지나자 이런 단순한 생활은 저를 나태하게 만들었으며 게을러지게 했습니다. 내

가 지금 선교를 하려왔는데 무엇을 하고 있지? 하면서 저 자신에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때 나의 목자되신 여호와께서는 저의 원수의 목전에서 저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저의 머리에 바르사 저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부터 꿈꾸어 오던 환상적인 선교사역이 내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족족,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600여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에 우리배가 가게된 것입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뱃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토해버리고 끝없는 바다를 향해 하며 육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끝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만에 육지에 나왔던 것 같이 저도 그 육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추장이 상투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일 동안은 그 섬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다에 떠있어야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선교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앞에 양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추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전도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곳 원주민들이 음식을 준비해와서 우리와 함께 고제하며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일 후 우리는 200여명이 살고있는 또 다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미전도족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마음 문을 미리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며 우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집회를 할때에는 이 섬에 사는 200



"나를 기념하라" 지난 주일(6월27일), 교회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다.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거행된 성찬식을 통해 온 성도들은 준비된 건강한 마음과 태도로, 다시 한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여명의 모든 원주민이 다 모여 복음을 들었으며 우리는 이들과 함께 '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상황은 마치 사탄의 지배를 받던 이땅이 복음의 폭발에 의해 섬 전체가 덮이는 실감나는 천국잔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들의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그곳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전문사역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태평양의 교회가 없는 수 많은 섬들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두 사람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각 지체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주님의 대 명령 앞에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 사역지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 배가 갈 수 없는 조그만 섬들을 스피드 보트를 타고 방문하였습니다. 겨우 파도를 가르며 도착한 어느 섬은 정글로 덮여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정글 사이로

한참을 들어갔을 때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투른 영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또한 영어권에 살고는 있지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투른 영어를 더 잘 알아 듣는답니다. 이 사실 또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집을 찾기 위해 정글속을 헤매야 했으며 한집 한집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나 다. 한국에서 꿈꾸던 선교가 나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도를 넘어 정글속을 헤쳐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라, 가서 전하라"는 주님의 대 명령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무슨 계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동역자 여러분의 끝없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선교지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이런 계명을 받기도 전에 사탄과의 싸움에 져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적전쟁의 최전방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부 파송 허 남 조 형제
(한나호 선교사)